

죽음에 대한 한 성찰

2014년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았다. 유명 가수의 급작스러운 죽음, 생활고에 삶을 버린 가족들 이야기,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강당 붕괴 사고, 부활 주일을 앞두고 배와 함께 가라앉은 꽃 같은 학생들의 소식은 큰 국민 없이 읽었던 죽음과 삶에 대한 성경 본문들을 곱씹게 했다.



전성민 서울대학교에서 수학(B.Sc.)을, 캐나다 리젯칼리지에서 성경언어와 구약학(M.C.S., Th.M.)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구약학(D.Phil.)을 전공했다. 최근 역서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가 있으며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연구서 *Ethics and Biblical Narrative*를 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 시리즈로 출판하였다.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섬기며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주해를 접목한 강의들을 하고 있다.

엘리아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열왕기상 17장) 능력의 하나님이 왜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가라앉은 수많은 생명들은 그대로 두셨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엘리아의 기도는 응답되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간절하게 드려진 대한민국인 기도들은 응답되지 않았을까.

열왕기의 기적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죽음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러나 어째서 지금은 나사로처럼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처럼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 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일까. 생활고에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베풀어진 기적,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 또한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고백은 지금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자녀가 다시 살아났다는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생생한 현실인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 너머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이 죽은 자가 회생했다는 열왕기 내용을 읽으며 우리가 씨름하게 되는 질문이다.



우선 열왕기 본문에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이 죽을 것을 분명 “재앙”이라고 말했다(왕상 17:20). 죽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재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운다. 엘리야도 부르짖었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에 우셨다(요 11:35). 죽음은 미화할 수 없다. 특히 영문 모를 죽음은 더욱 그렇다.

두 번째, 성경시대에는 놀라운 기적이 매일같이 벌어졌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이 다시 소생한 사건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한다(왕상 17:22). 여기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표현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차원을 넘어 “순종했다”고까지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주로 성경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즉, 이 사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순종했다”는 희귀한 표현을 사용할 만큼 예외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같은 표현이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에도 사용되었다. 이것을 열왕기 본문에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능력이 실제로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경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죽은 사람이 그냥 죽은 채 있는 것이, 또는 죽을 사람이 그냥 죽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흥미롭게도 죽어서까지 시체를 살리는 능력의 매개가 되었던 엘리사조차(왕하 13:21) 죽을 병에 걸렸고(왕하 13:14) 그 병으로 죽었다(왕하 13:20).

마지막으로, 죽음을 피하거나 미뤄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과 그의 시간 스케일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초조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실망하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또 “언제까지입니까?”라며 슬픈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죽음이 현실인 삶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잘못된 아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하며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의 통치를 근원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비록 우리의 생이 끝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말이다. 요컨대,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은 사람이 죽지 않거나 죽은 사람이 기도하면 금방 소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자 굴에 빠져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그리 아니하시어” 사자 밥이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단 3:18 참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음에도 말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히 11:37).



성경은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가장 알아듣기 쉬운 소생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효과가 불로장생이나 즉각소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과 그로 인한 본질적 효과를 히브리서에서 읽을 수 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히 2:14-15)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였으며 그 본질적인 효과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나아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 죽음을 통해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유다 지파의 사자(lion), 그분의 실체가 죽음 당한 어린 양이라는 복음의 비밀이다(계 5:5-6). 물론 원하는 것이 불로장생과 즉각소생이라면 이러한 승리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민낯의 대답을 요구한다. 우

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로장생과 즉각소생으로 대표되는 욕망의 무한 성취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삶인가?

이유 없이 닥쳐온 죽음은 재앙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너무 슬프고 아프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의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죽음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죽음이라는 생생한 현실 앞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던진다.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고백한 제자들의 자발적인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제자들의 죽음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매번 홍해를 가르시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매번 소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지리적, 문화적 한계가 없다. 죽음은 하나님의 한계점이 아니다. 예수님의 한계점도 아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제자들의 죽음이 세상을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 무너진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감히 기도한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 노릇 하는 데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 ☺

